

01. 제84차 ICOLD 연차회의 참관기 : 한성남(계룡건설산업(주))

02. 제4회 APG 심포지엄 및 제9회 동아시아 댐기술교류회의(EADC) 참관기 : 김태근(K-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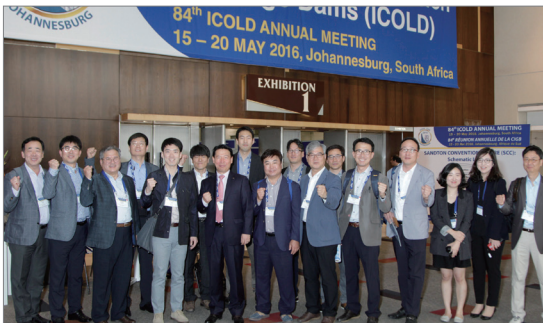
03. 『최신 댐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 국제심포지엄 개최기 : 김수근, 반우식, 김봉상(K-water)

04. JEF 활동기 : 채석준(주대우건설)

제84차 ICOLD 연차회의 참관기



한성남 부장 | 계룡건설산업(주)



〈그림 1〉 한국대댐회 대표단 사진

제84차 국제대댐회 연차회의는 2016년 5월 15일(일)부터 5월 20일(금)까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다. 회의 주제는 “Appropriate Technology to Ensure Proper Developm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Dams in Developing Countries(개발도상국에서 댐의 개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기술)”로서 한국의 댐 산업이 해외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와의 관심사와도 잘 맞는 주제라 생각이 되었다.

한국대표단은 기재부 1명, 국토부 2명, K-water 7명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관, 학교 및 기업에서 파견된 3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연차회의 개최 장소가 한국에서 꽤 거리가 되는 곳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참가하였다.

한국에는 아프리카로 가는 직항이 없기에 홍콩을 경유하는 비행 편을 선택했다.(경유시간이 제일 짧았다.) 같은 날 떠나는 대표단 일행들과 인천공항에서 만나 긴 비행에 몸을 맡기고 드디어 여행자들에게는 마지막에 꼭 가봐야 할 곳이라 불리는 아프리카에 도착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큰 공항에 우선 한 번 놀라고,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에서 여러꾼(일명 ‘삐끼’)들이 짐을 들어주겠다는 등, 길을 찾아주겠다는 등 여러 이유로 달라붙으며 돈을 요구하는 광경에 두 번 놀랐다.

여러꾼들을 물리치고 우린 예약한 ICOLD 셔틀버스를 이용해 숙소로 이동하였고,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노곤함을 호텔에서 풀 수 있었다. 첫 날은 여장을 풀고, 다음 날의 일정을 위해 호텔 내에서 쉬는 쪽을 선택했다. 오랜만의 장시간 비행과 비행기 안에서 뽕뽕한 에어컨 덕분에 몸이 한기가 들어서인지, 아프리카에서의 첫 여정은 단잠으로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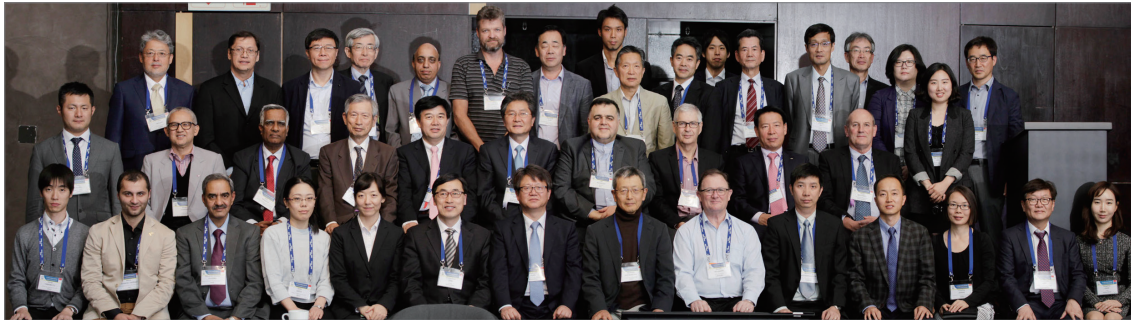
ICOLD의 첫 공식 일정은 주최 측에서 준비한 ‘시티투어’였다. 짧은 시티투어였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치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집 담장위에는 쇠창살로 담장을 못 넘게 막아냈으며, 그 위에 고압선을 깔아 아예 접근이 어렵게 하였다. 실로 말로만 듣던 아프리카의 치안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었다. 가이드도 투어를 했던 쇼핑물 밖으로는 나가지 말도록 상시 주의를 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림 2〉 넬슨 만델라 동상



〈그림 3〉 YEF 회의 전경



〈그림 4〉 APG 회의

이번 ICOLD가 개최된 Santon Convention Center 맞은편에는 큰 쇼핑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쇼핑몰 광장 안에는 '넬슨 만델라(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인권운동가이면서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 동상이 있어서 가끔 아프리카에 와있는 나를 잊다가도 동상을 보면 내가 아프리카에 와 있구나를 다시 한 번 실감 할 수 있었다.

5월 16일 두 번째 날, YEF(Young Engineers Forum)회의에서 한국대담회 YEF대표로 이양재 회원(현대건설 과장)이 YEF 임원에 출마하였지만 경쟁 후보들과의 간발의 차로 아깝게 임원 선출이 안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타 국가 대담회에 한국대담회를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젊은 기술자들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젊은 기술자들의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제대담회 YEF와 한국대담회 JEF의 조화를 이뤄 한

국에서도 젊은 기술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기회를 마련해 주는 좋은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었다.

5월 17일에는 본격적으로 기술분과위원회 회의와 APG(Asia Pacific Group)가 속한 대륙별 이사회가 주를 이뤘다. 한국대담회는 댐 내진설계, 댐 안전분과, 수력발전소 및 저수지 통합운영, 저수지 퇴사 등 총 6개의 분과 위원회에 한국대담회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APG 이사회에서는 염경택 단장님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아시아 Technical Report를 작성하는 큰 프로젝트가 의결



〈그림 5〉 국제심포지엄 개최식



〈그림 6〉 Rust De Winter 댐 전경 사진



〈그림 7〉 Rust De Winter 댐 시찰 사진

되어 아시아만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5월 18일에는 국제심포지엄이 메인이 되어 주를 이뤘다. 한국에서는 이번에 구두 발표로 1명이 통과가 되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을 하여 발표를 하는 이가 없었다. 몇몇의 포스터 발표로 그 아쉬움을 대신하였지만 한국대 댐회를 대표하여 단상에 서는 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지 아닌가 싶었다.

5월 19일에는 아프리카의 댐을 시찰하는 기술견학에 참여하였다. 기술견학 4개의 개설 코스 중 한국대댐회는 2개의 코스에 참여했으며, 필자는 그 중 지중 Rust de Winter 댐을 시찰하는 코스에 참여하였다. Rust de Winter 댐은 누수탐사 신기술인 Willowstick 탐사기술을 동반 시 연한 CFRD 타입의 댐으로서 1934년에 준공되어 관개를 목적으로 지어진 댐이다.

5월 20일 대망의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엔 집행 위원회에서는 제26차 총회 Technical Question을 채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럽존과 제6차석 부총재단 선출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사회 및 한국대댐회를 포함한 APG 에서 총회 개최 주기, ICOLD 개최국 선정에 대한 By-law 수정안건 제의도 진행되었다. 차기 연차회의 개최국인 체코대댐회의 설명도 함께하였으며, 한국대댐회는 ICOLD 참석과 활성화를 위해 기술분과위원회에 신규 회원 등록 및 위원 교체를 공고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당일 저녁 마지막 공식일정인

환송만찬에서는 주최 측에서 준비한 공연과 함께하며 아프리카 특유의 에너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연차회의에서는 한국대댐회 대표단장으로 차기육 기획부회장이 참석하여 이란대댐회와 MOU체결을 약속하는 귀중한 시간도 함께하였다. 국제대댐회 회원국으로서 상호기술공유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한 듯하여 한국대댐회 회원으로서 괜스레 뿌듯함이 느껴졌다.

제84차 국제대댐회 연차회의는 아프리카 남단에 위치한 한국에서 정말로 먼 곳에서 개최되었음에도 한국대표단의 댐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수고해주신 한국대댐회 집행부에 감사말씀을 드리며, 차기 연차회의에도 많은 기관과 학교,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기술적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원하며 참관기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그림 8〉 집행위원회 전경